

'민족운동의 선봉장 면암 최익현'

면암최익현선생 승모사업회 만화 發刊

면암 최익현 선생 승모사업회(회장 이규상)는 최근 만화 '민족운동의 선봉장 면암 최익현'을 발행해 포천관내 각급 기관 및 학교에 배포했다.

면암 선생 서거 100주년을 맞아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받들기 위해 제작한 이 만화는 면암 최익현 선생의 역경의 삶과 깊은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총 63페이지로 구성된 '민족운동의 선봉장 면암 최익현'은 제1

장 어린시절, 제2장 벼슬살이 귀양살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천시 지원으로 제작됐다.

면암 최익현 선생은 포천시 신북면 가재리에서 출생하여 고난의 일생을 살다가 74세(1906년)를 일기로 일본 대마도의 한병 감옥에서 아사(餓死) 순국했다.

면암 최익현 선생은 어려서부터 부모에 효도하고 존경으로 스승을 모시며 오로지 학문에 힘썼으며 평생 벼슬 지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물을 탐하지 않았기에 청

렴강직한 삶을 실천하여 높은 존경을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면암 최익현 선생 승모사업회 이규상 회장은 "면암 선생은 이 나라가 기울 때 임금이 상소문으로 바로 잡기를 수없이 간하다가 두 번이나 귀양살이를 하였으며 왜놈의 문화 빛이 땅을 짓밟자 무인이 되어 의병의 정수로 나아가 싸우기도 한 분"이라며 "이 만화를 통해 선생의 역경의 삶과 깊은 사상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만화 '민족운동의 선봉장 면암 최익현' 표지.

韓國의 선비정신 · 31

한국여성으로 유일하게 세계 유명 여류인사명단에 기록된 '송씨부인'



리효중 포천시시장 대표

세계 역사상 이런 기록이 있을까? 한평생을 살면서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모두 영의정이 되었으니 말이다.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으로서 수상, 재상, 승상, 영상, 수규, 상상 등으로 불리워졌던 중암 최고위 관직 정미 품으로 품게는 대광보국 송목대부(大匡輔國 崇穆大夫)이다. 이러한 영의정을 한 사람도 아닌 세사관과 일생을 살았으니 그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조선조를 통틀어 162명의 영의정 중 3명과 함께 살았으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중종조 때 영의정을 역임한 송질의 딸이자 영의정 홍언필(洪彦弼)의 부인이며 영의정 홍섬(洪疇)의 어머니 송씨부인(宋氏夫人)이다.

아버지 송질은 이조판서, 우원성, 우의정, 좌의정을 지내고 영의정이 되어 67세의 인생을 살았다. 남편 홍언필은 문과에 2번이나 급제해 대사헌, 4조판서, 우좌영의정을 역임하고 위사공신(衛社功臣)으로 익성부원군(益城府院君)에 봉해지고 계장까지 하사 받았다. 아들 홍섬은 양관 대제학, 이조·예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을 3회나 역임했고 청백리에 녹신되는 영에도 안았다. 계장도 하사 받았다.

이런 까닭으로 당시에 왕비는 송부인이 나타나면 꼭 일어서서

마중하며 깎듯이 존경을 표했다고 하는데 그 까닭을 묻자 왕비는 자신은 남편이 임금일 뿐이지만 송부인은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이 모두 영상을 지냈으니 여찌 내가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송부인은 예의범절에 밝고 부덕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장 부였다고 한다.

송부인의 어머니는 성격이 거칠고 사나우며 행동이 과격하고 질투도 심하여 악처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 송질은 세 딸이 혹시 모전전으로 어머니의 성격을 닮을까 걱정되어 세 딸을 불러놓고 한바탕 연극을 하도록 했다. 딸들 앞에 악을 한사발씩 내놓고 말하기를 "애들이 너희들이 어머니를 본받아 극성을 부리면 다음에 시집을 가더라도 송씨가문에 누가 미칠 터이고 또 그 때문에 집안이 화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얼굴까지도 먹칠을 하게 될 터이니

그럴 양이면 여기 이 악이 독약이니 모두 마시고 죽어라."고 노기에 찬 얼골로 설교를 했더니 위로 두 안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본받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으나 셋째인 송씨부인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본마음대로 살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르겠느냐"고 선포 약사발을 들이켰다고 한다. 물론 그 악은 독약이 아니라 보약이었지만 여장부같은 송씨부인의 기개가 발휘되었고 딸들의 기질을 시험하고 길을 들이려던 송질은 셋째 딸의 기개에 미소를 짓고 말았다.

몇해 전 미국에서 간행된 '세계 유명 여류인사' 명단 속에 신사임당을 제외하고 송씨부인이 한국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올랐다고 한다. 한국에 있어서도 전후 후무한 일이지만 아마 세계사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었을까? 이런 강한 의지와 기개를 결집한 여장부 송씨부인의 풍성한 뒷이야기 남편 홍언필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승승장구 영의정까지 치달았고 아들 홍섬도 벼슬생활에 충실하면서 근검절약하고 청빈하여 영의정을 지내고 청백리에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홍섬은 70세때 계장을 하사 받았는데 87세의 송부인이 그 광경을 보니 역사에 없었던 경사였다.

여자로 태어나 이보다 더 좋은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 있었을까?

반월아트홀 6월 공연

포천반월아트홀은 6월을 맞아 가족뮤지컬과 뮤지컬 인형극, 중국 기예단 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 가족뮤지컬 걸리버 여행기 6월2일(금) 오후 7시 30분과 6월3일(토) 오후 3시에 가족뮤지컬 걸리버 여행기가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관람료는 A석 5천원, S석 7천원, R석 1만원이다.

우리가 사회가 지니고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코믹스럽게 꼬집고 유쾌한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걸리버 여행기'는 후쿠 선장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모험정신과 따뜻한 인간성, 서로 돕는 우정을 심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있다. 총 천연색깔라 배경과 화려한 무대를 주목할 만 하다.

▶ 중국 기예단 쇼 '변검과 퍼포먼스' 6월 17일(토)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에는 중국 기예단 쇼 '변검과 퍼포먼스'가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관람료는 A석 5천원, S석 7천원, R석 1만원으로 오랜 훈련과정에서 얻은 기예



단의 기술,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전제하고 있는 변검 기술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Li You Lin 의 기예단 단원은 중국 하북성 우후우란단 기예단 예술학교 출신이며,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홍콩, 한국, 러시아 등 10여개 국에서 공연을 하였고, 2002년 중국 기예 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뮤지컬 인형극 '일곱 마리 아기염소와 늑대'가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관람료는 전체 6천원이며 다양한 형식의 인형들과 배우들과 그리고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뮤지컬인 만큼 아름다운 음악과 춤이 어울어져 아이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다.

예약문의 : 포천반월아트홀 031)538-2938 ~ 40 www.bwart.net 박영남 기자 varanase@naver.com

동농기념사업회 발기대회에 부처

창대하리 동농의 일

석수장이는 다보탑 석가탑의 천 년 영화를 누렸어도 자신의 이름이 빛나기를 바라지 않았나니 동농의 일이다.



김순진 -시인-월간스토리문화발행인

한 두 잔의 물로 갈증을 가실 수 없었음에 우리는 문화의 갈증을 견디다 못해 우물을 팠다.

이제 또다시 동농의 강에 물이 흘러 사랑과 봉사로 수영할지 가문 논바다 속 타는 심정으로 바라보던 포천에 물고기가 트였구나.

방앗간에 참새가 모여들듯 동농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아낌없이 퍼주는 동농이여 산호처럼 고귀하게 돌아오는 사람이여 문화의 더듬이 될지이다.

내 정신 모두 주고도 행복해하시던 동농의 일로 다담쥐 쳇바퀴 돌듯 삼천리강도 휘돌아보세 아... 화산처럼 터져 오르는 강동이여 동농의 일 받들려 모였나니 구멍 성근 배보자기로 시름과 오욕을 거른 장맛은 나라사람으로 간드러지고 질박하나 아늑한 동농기념사업회는 민족혼 담긴 막된장 향이리가 되리.

보라, 저기 동농의 일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몰려온다. 비야흐로, 동농의 시대이다. 우리 이 포천에서 삼천리강도 꽃물들일 진달래 눈물로 울자꾸나 자손만대 칭송될 동농기념사업회 탄생 숨가쁘다. 창대하리 동농의 일이어.

우국충정의 고귀한 정신 본받아야

포천문화원 청소년 관내 문화유적답사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중학교 4개교 15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답사는 자라나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과 더불어 역사를 재조명하는 취지로 제2회 반월문화재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

회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특히 문화유산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으로 관내 유적지인 충무단을 비롯 화산서원, 고인돌, 포천향교, 청성공원, 인평대군지제문비, 용연서원 등 고장의 문화재를 비롯해 명현과 석학, 충·효·열 인물과 의병 활동으로 순국하신 우국충정의 고귀한 정신 등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

답사에서 보고 느낀 바를 소감문을 제출받아 시상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관내 초·중생을 대상으로 2차 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영남 기자 varanase@naver.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66)



포천의 '태실(胎室)'

'태실(胎室)'이란 왕실의 왕녀(王女)나 공주, 왕자의 출산(出山)시 태(胎)를 소중히 여겨 보관하는 곳인데 귀한 향아리에 담아 태봉을 정하고 태실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풍속은 고려조 이래 우리나라 전래(傳來)의 풍속 중, 왕실의 풍습이었다. 내 고향 포천에는 공인된 태실(胎室)이 세 곳이 있으며 공인된 태실은 아니더라도 전설로 전해지는 태실이 있던 태봉이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태봉등록(胎峰錄)', 규(奎)128932에 의하면 소홀을 무봉이 태봉산(230m)태실이 있는데 주인공 '용주아기씨'의 출생

일은 1735년(영조11년) 9월19일이며 당시 서소홀산면 약사봉(동) 소재의 이봉우리를 낚섬 후, 12월25일 시역(始役)하여 11월 26일에 안태사(安胎使)로 임명된 도승지 김시형(金始炯)의 책임아래 필역(畢役:일을 마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위 무봉리 태실 외에도 금주리 태실이 있는데 만세교 동쪽 700m 지점에 솟아있는 정상에 있었던 태실이다.

전언(傳言)에 의하면 조선시대 제12대 임금인 이종의 딸로 태어난 공주의 태를 봉했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태실 포석 및 문헌이 없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일제 강점기에 이미 태 향아리

는 도굴되었고 그후 웅석과 개석만이 산정상에 방치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군사기지가 개설되면서 태실의 석물마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또, 주인의 태실은 창수면 주원리 군자동 중앙의 태봉산(130)에 있었던 태실이다. 태봉산으로 전언되어온 이 태실은 증명할 만한 근거나 기록은 없으나 군부대에서 정상부까지 군사진지를 공사하던 중 우연히 태 향아리가 발견되어 태봉임이 증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군부대에서 수습하였다는 청자빛의 태 향아리는 현재 석조물과 함께 그 행방을 알 길이 없다.

신북면 가재리 711번지 태봉산

은 경주 최씨 문중 산인데 130m의 높이로 이름만 태봉산이지 석조물이나 태실, 태향아리는 찾을 길이 없다.

40년 전, 가재리 태봉산 기슭에서 과수원 굴착공사 중 태 향아리로 추정되는 향아리가 발견되어 포천우체국에 기증되었다는데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당시 태봉산은 체성회 보호림이었음) 이상 네 곳의 태실을 살펴 보았다.

원래 태실은 왕실의 공주, 왕주, 왕녀들의 태(胎)를 태 향아리에 담아 명산 봉우리에다 길일(吉日)을 택해 매장되었다는 점에서 옛 조상님들의 풍수사상(風水思想)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재미 있다.

태실의 태 향아리나 석조물은 당시의 귀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문화재 도굴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 고향 태실도 문화재적 가치 보전(保傳)의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신간안내

전월석 詩集 '가을을 건너는 새'

전라남도 승주 조계산 대각암 전월석 시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회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시집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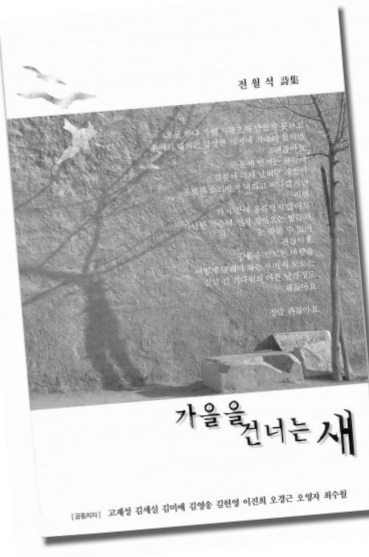
'가을을 건너는 새'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시집은 고재성, 김세실, 김미애, 김영송, 김현영, 이진희, 오경근, 오영자, 최수월 시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시집 발간에 참여한 김영송씨는 포천시 소재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평소 다양한 시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석 시인은 "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시집을 내고 부끄러움에 발등을 찌고 싶었던 게 잊지 않는데 다시 부끄러움 짓을 하고 말았다"며 "평소 친분이 있는 시인님들과 공동으로 시집을 내게 되어 그나마 다들 스스럼없이 기쁘게 참여해주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숨길 수 없다"고 밝혔다.

지은이 전월석 외 9명/펴낸이 함성룡/편집디자인 김진자/인쇄 에드테크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祝 傳統成年式 (祝 전통성년식)

<p>초대 漢詩</p> <p>人間最喜禮成年(간학회에성년) 시림에게 가장 기쁜 일은 성년의 예이니</p> <p>冠者端華彝倫合(관자단화이륜합) 단정하고 이따따운 관자는 이룬이 모여지고</p> <p>儼然正大民生學(엄연정대민생학) 엄연하고 바른 일은 삼이기에 배우고</p> <p>傳統仁風承繼式(전통인풍승계식) 전해지는 어진 풍속 이어가는 식전에</p>	<p>遠近貴賓祝賀進(원근귀빈축하헌) 원근의 귀빈을 모시고 축하의 지리가 마련되었네</p> <p>笄娥靜淑婦道先(계아정숙부도선) 정숙한 계림은 부도가 우선이니</p> <p>珍重和平處世賢(진중평안처세현) 진중한 평화를 처세가 어질고나</p> <p>靑城全城曙光連(청성전역서광연) 포천시 전역에 서광이 이어지도다</p>	<p>최종규 포천 명예회 회장</p>
---	---	---------------------------------

초대 詩

<p>아침 이슬 밟고 가을자 사이로 거울처럼 빛나는 철조망 밑을 허리 질러 속으로 울고 있어도 끊어질 수 없는 자유를 위해 어둠을 풀어 시냇물결에 닳아 오를 방죽을 흔들며 눈을 뜬다</p>	<p>그래, 살아 있구나 있어 내리고 비틀리며 질식하더니 드러낸 것과 숨겨진 허물까지 용서하는 사해 바다에서 마른 가슴이 시러 올 때까지 부둥켜 안으리라.</p>	<p>이재석 이동문학평론 동시 등단 이담문학회 회원</p>
---	--	---